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정은이(鄭殷伊)* · 박용한(朴鎔漢)**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교수신뢰와 대학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교수신뢰가 학습동기와 대학적응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태도가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변인간 상관과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수신뢰 요인은 능력과 친밀감이었다.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교수의 친밀감은 학생들의 과제가치와, 통제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한편 교수의 능력에 대한 인지는 외적동기, 과제가치, 통제감 등 학습동기의 여러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신뢰의 측면 중에서 능력이라든지 성실정보다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해 교수신뢰의 하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학업적응 및 대학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았다. 학업적응은 친밀감, 개방성, 능력 등 교수신뢰의 여러 하위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만족도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들의 개방성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확보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업적·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학습동기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효

* 청운대학교

** 미시간주립대학교

과적인 학생지도와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대학생활적응, 교수신뢰, 학습동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교육의 위기감 중에서도 특히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이 갖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문제는 학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부터 학교 교육의 방법과 질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교육 당사자의 신뢰 문제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신뢰 문제 중에서도 교육의 가장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및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김정화, 김언주, 2006; 이숙정, 2006; Furrer & Skinner, 2003). 신뢰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학생에 대한 그리고 교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Applebaum, 1995), 인간관계와 사회적 풍토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중심역할을 한다고 주장(Stipek, 1998)에 근거하여 볼 때, 교육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신뢰를 측정하고 논의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Bryk & Schneider, 2002; Tarter et al., 1995; Tschannen-Moran & Hoy, 1998)은 학교에서 형성되는 신뢰 중 교사가 지각하는 신뢰와 신뢰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여러 신뢰의 관계 중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학교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형성하는 교사와의 신뢰 관계가 학생의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는 학생의 인지적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습동기 등 동기적, 정서적 측면과 그 관련성이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이숙정, 2006; 정애숙, 2005).

교사신뢰와 학습동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고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신뢰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이숙정, 2006)와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에서 교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더 높다(최만영, 1999; 허은호, 2001)는 연구가 있다. 또한 아동이 교사와 신뢰롭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Furrer & Skinner, 2003), 교사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을 더 내적으로 동기화시킨다는 연구 결과(Ryan & Grolnick, 1986; Skinner & Belmont, 1983)도 있다. 교사신뢰와 학교적응에 관해서는 아동이 교사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연구들(박희자, 2003; 권영복, 2002)과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와 학교생활적응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김정화·김언주, 2006)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학습동기, 학교적응의 문제를 다루어온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초중등 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학 상황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대학이라는 환경은 초중등 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다른 수업 방식과 생활 양식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원만하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으며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러한 새로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가 학생 복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하여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되어야 할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Buber는 교육의 핵심을 '관계'로, 교사의 역할을 '관계 맺음'으로 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신뢰가 교육적 관계의 가장 심오한 성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지현, 2001). 이러한 관계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교육적 가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문제를 그들이 지각하는 교수신뢰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고찰해보고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교사신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및 학습동기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 신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학에서의 학생 지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교수신뢰와 대학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교수신뢰가 학습동기와 대학적응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태도가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신뢰와 학습동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교수신뢰와 대학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교수신뢰가 학습동기와 대학적응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수신뢰

Furrer와 Skinner(2003), Weinstein(1993), 그리고 Babad(1990) 등은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학생 자신의 기대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신뢰는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하여 관계형성의 유지,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인지적, 정의적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숙정, 한정신, 2004). 이런 관점에서 신뢰는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적, 성향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의 특성과 신뢰성 요인들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능력, 믿음, 개방성, 친밀감, 성실성, 돌봄, 상호지지, 상호존중 등을 들 수 있다(이숙정, 한정신, 2004; Bryk & Schneider, 2002; Hoy & Kuper-Smith, 1985). 이숙정과 한정신(2004)은 신뢰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신뢰의 요인으로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 등의 6개의 요인을 제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개방성은 교사가 얼마나 편견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관점과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을 검토, 수정하고 재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능력은 구체적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소유 여부에 관한 것이다. 성실성은 교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지녔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돌봄이란 교사가 상대방의 관심과 관점을 존중하고 그 존중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행위하려 하는가의 특성이다. 믿음은 학생들이 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동에 의지하려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정서적 결속감이나 연대감을 가짐으로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깝다는 느낌을 언급한다. 이런 여섯 가지 교사신뢰의 요인은 모두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특성으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교사신뢰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 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으며(이경아, 정현희, 1999), 교사의 지식적인 측면보다 정서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은 교사를 더욱 신뢰하며,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교사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장선자, 2004)는 결과가 있다. 또한 교사 신뢰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그

리고 학급풍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숙정, 2006)이라는 연구도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교사신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교수신뢰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2.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학습자의 학습동기는 그것이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학습상의 난관에 부딪힐 때도 인내심을 갖고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한순미, 2004)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습동기는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의 성취를 위해 학습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며 조절시키는 과정을 포괄하는 심리적 구인을 일컫는다. Garcia와 Pintrich(1995)는 학습동기의 하위 요소로서 내적동기, 외적동기, 과제가치, 통제감, 자기효능감 등의 요인을 포함시켰다. 내적동기는 학습 자체와 숙달을 학습의 목표로 하는 동기인 반면에, 외적동기는 좋은 성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습에 임하는 것을 언급한다. 과제가치는 학습내용이 얼마나 흥미롭고 유익하며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학습동기를 말하며, 통제감은 학습자가 학습의 결과를 교사나 운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연관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과제성취를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Ryan et. al., 1994; Skinner & Belmont, 1993; Stipek, 1998)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들 간의 관계와 학교의 사회적 풍토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몇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행동과 학습동기와의 관계에서 이철희(2000)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행동은 아동의 학습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지지적 도움행동과 높은 기대 등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학습에 대한 의욕, 태도 및 목적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운선, 2000)도 있다. 수업사태에서 교사의 행동은 아동의 학습태도나 학습동기와 같은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순홍(1988)의 연구결과와 교사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습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 연구도 있다(조광규, 1997). 정애숙(2005)은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신뢰 및 태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숙정(2006)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교사신뢰가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급풍토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계모형의 검증을 통해 밝혔다. 또한 교사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을 더 내적으로 동기화시킨다는 Ryan과 Grolnick(1986), Skinner와 Belmont(1993) 등의 연구 결과들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3.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학의 물리적·사회적 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다(한덕웅 외, 1991). 대학생들의 주요 생활터전이 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사회적·심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얻게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정현욱, 1996).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교수의 상호작용은 주로 강의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록 각 학년마다 지도교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학생-지도교수의 관계가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담임 선생의 관계처럼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생-교수의 상호작용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쉽고, 설령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눈에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러한 학생-교수의 관계로 인하여 학생들은 강의나 학과 활동에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학교몰입에 어려움을 갖는다(Peabody & Sadelacek, 1982).

학교 적응에 관해 윤주(2001)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해줄 것을 강조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에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좀 더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irch와 Ladd(1997)는 학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동들은 학교 환경을 더욱 지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이 학급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급내의 학습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또한 Pianta & Steinberg(1992)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교사신뢰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김정화와 김언주(2006)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교사신뢰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교사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박희자, 2003)와 교사 신뢰와 유사한 개념으로 교사 친밀감이 아동의 학교 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이윤정, 2003). 또한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 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이경아, 정현희, 1999)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대학에서도 교수에 대한 신뢰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C대학교 학생들로서 교양과정으로 '심리학 개론'을 듣는 학생 184명이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무선적으로 답한 3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51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2-4학년 학생들로서 교양강의의 특성상 인문·사회, 이공계열, 예술계열, 경상계열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한 수업이다. 피험자들은 수업 중에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현황

	피험자	N(151)	%
성별	남	90	59.6
	여	61	40.3
학년	2	69	45.6
	3	52	34.4
	4	30	19.8
전공	인문사회 계열	41	27.1
	이공 계열	37	24.5
	예술 계열	39	25.8
	경상 계열	34	22.5

2. 측정도구

1) 교수신뢰 검사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이숙정과 한정신(200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교사신뢰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교사'를 '교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능력, 개방성, 믿음, 친밀감, 돌봄, 그리고 성실성의 6개 요인의 총 30개 문항(영역별 각 5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서 각 하위 요인의 총점과 전체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얻어진 교수신뢰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92이었다.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개방성 .79, 능력 .77, 성실성 .75, 돌봄 .74, 믿음 .75, 친밀감 .80이었다.

2) 학습동기 검사

학습동기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Garcia와 Pintrich(1995)가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사용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의 학습동기 부분 중 내적동기, 외적 동기, 과제 가치, 통제감, 자아효능감 등을 번역 사용하였다.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검사는 내적동기(4문항), 외적동기(4문항), 과제가치(6문항), 통제감(4문항), 자아효능감(8문항) 등 학습동기의 5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로부터 얻어진 학습동기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90 이었다.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내적동기 .62, 외적동기 .65, 과제가치 .79, 통제소재 .62, 자아효능감 .79 이었다.

3) 대학생활적응 검사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척도를 조수진(1999)이 우리말로 번역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학업적응, 전반적인 대인관계 상태를 파악하는 사회적응,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정서적응,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정도를 측정하는 대학만족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가지의 하위 요인을 모두 합하면 전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까지의 9점 척도로, 역채점 문항이 포함된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자료로부터 얻어진 대학생활적응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9이었다.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학업적응 .76, 사회적응 .77, 개인-정서 적응 .77, 대학만족 .81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통계기법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 을 이용하였고,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준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은 모든 독립변인을 한꺼번에 회귀식에 투입하고 변인들이 공유하는 공통변량을 제외하고 설명변량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식을 구성한 독립변인들의 전반적인 예측력을 파악하고자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

교수신뢰와 학습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s r)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교수신뢰와 학습동기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교수신뢰 총점과 학습동기 총점 간에는 .385($p < .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수신뢰와 학습동기의 하위 영역 점수간의 상관을 분석해보면 교수신뢰의 모든 하위 영역은 학습동기의 하위 영역인 과제가치(.207-.334) 및 통제감(.181-.427), 그리고 자기효능감(.195-.308)과 유의미한 상관을 맺고 있었다. 특히 교수신뢰의 하위 영역인 능력, 즉 교수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 등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습동기의 하위 영역인 통제감, 즉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를 얼마나 자신의 노력과 통제하에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인 .427($p < .01$)의 상관이 있었다.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Pearson's r)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교수신뢰 총점과 대학생활적응 총점 간에는 .340($p < .01$)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특히 교수신뢰의 각 하위영역과 대학생활적응 중 대학만족의 영역과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9-.423).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교수신뢰 중에서 개방성 영역과 대학생활적응 중 대학만족의 영역 간의 상관이었다(.423, $p < .01$). 한편, 교수신뢰의 하위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의 성실성 정도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모든 영역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2>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간의 상관

변인	내적동기	외적동기	과제가치	통제감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총점
개방성	.093	.123	.230**	.266**	.220**	.245**
능력	.228**	.268**	.334**	.427**	.260**	.381**
성실성	.278**	.100	.249**	.383**	.180*	.295**
돌봄	.193*	.181*	.211**	.310**	.240**	.289**
믿음	.157	.210**	.305**	.332**	.195*	.306**
친밀감	.107	.146	.207*	.181*	.308**	.248**
교수신뢰총점	.231**	.222**	.336**	.415**	.306**	.38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

변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만족	대학생활적응총점
개방성	.288**	.213**	.115	.423**	.342**
능력	.048	.243**	.101	.321**	.238**
성실성	.059	.063	.029	.148	.100
돌봄	.148	.211**	.152	.323**	.276**
믿음	.139	.280**	.125	.353**	.297**
친밀감	.353**	.233**	.095	.289**	.314**
교수신뢰총점	.227**	.269**	.132	.404**	.340**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에서 학생들의 개인정서적응 정도는 교수신뢰의 모든 영역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학습동기의 주된 예언 변인

대학생의 학습동기가 교수신뢰의 하위 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동기를 종속변인으로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표준 중다회귀 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과 같이 R^2 가 .20($F=6.087, p < .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능력($B=1.959, t=2.722, p < .01$)과 친밀감($B=1.488, t=2.929,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동기의 20%가 교수의 능력과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중, 능력 요인의 경우, β 가 .31($p < .01$)으로 학습동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친밀감의 경우 β 가 .24($p < .01$)로 학습동기를 예측

<표 4> 학습동기에 대한 교수신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학습동기	(상수)	70.294	10.498		6.696***
	능력	1.959	.720	.319	2.722**
	친밀감	1.488	.508	.249	2.929**
$R^2=.20$, Adjusted $R^2=.16$, $F=6.087^{**}$					

* $p<.05$, ** $p<.01$, *** $p<.001$

하는데 교수의 능력 다음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대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동기의 하위요인들이 교수신뢰의 하위 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동기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교수신뢰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각 표준중다회귀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학습동기 하위요인에 대한 교수신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내적동기	(상수)	12.972	2.325		5.580***
	개방성	-.305	.153	-.251	-1.997*
	믿음	.333	.125	.282	2.665**
$R^2=.11$, Adjusted $R^2=.08$, $F=3.197^{**}$					
외적동기	(상수)	13.881	2.263		6.134***
	능력	1.959	.155	.318	2.555*
$R^2=.10$, Adjusted $R^2=.06$, $F=2.717^*$					
과제가치	(상수)	14.444	3.156		4.577***
	능력	.483	.216	.269	2.234*
	친밀감	.344	.153	.196	2.251*
$R^2=.16$, Adjusted $R^2=.12$, $F=4.570^{***}$					
통제감	(상수)	8.373	2.062		4.061***
	능력	.431	.141	.350	3.046**
	믿음	.285	.111	.253	2.572*
	친밀감	.194	.100	.161	1.942*
$R^2=.23$, Adjusted $R^2=.20$, $F=7.353^{***}$					
자아효능감	(상수)	20.625	3.893		5.298***
	친밀감	.609	.188	.285	3.231**
$R^2=.14$, Adjusted $R^2=.10$, $F=3.913^{**}$					

* $p<.05$, ** $p<.01$, *** $p<.001$

먼저,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내적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1($F=3.197$, $p<.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개방성 ($B=-.305$, $t=-1.997$, $p<.05$)와 믿음($B=.333$, $t=2.665$,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동기의 11%가 교수신뢰 중 개방성과 믿음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에 대한 믿음의 경우, β 가 .28($p<.01$)으로 내적동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내적동기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의 개방성의 경우, β 가 -.25($p<.05$)으로 내적동기를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부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개방성을 보일수록 내적동기 수준은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외적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0 ($F=2.717$, $p<.05$)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능력($B=1.959$, $t=2.555$,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동기의 10%가 교수신뢰 중 능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교수의 수업 및 연구관련 전문성에 대한 능력은 β 가 .31($p<.05$)으로 외적동기를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외적동기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과제가치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6($F=4.570$, $p<.0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능력 ($B=.483$, $t=2.234$, $p<.05$)과 친밀감($B=.344$, $t=2.25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가치의 16%가 교수신뢰 중 능력과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의 능력은, β 가 .26($p<.05$)으로 과제가치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수업 및 학습과제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의 경우, β 가 .19($p<.05$)로 과제가치를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친밀감 보일수록 과제가치 수준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통제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23($F=7.353$, $p<.0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능력($B=.431$, $t=3.046$, $p<.01$)과 믿음($B=.285$, $t=2.572$, $p<.05$), 친밀감($B=.194$, $t=1.94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감의 16%가 교수신뢰 중 능력과 믿음,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의 능력은, β 가 .35($p<.01$)으로 통제감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수업 및 학습 내용에 대한 통제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음의 경우, β 가 .25($p<.05$)로 통제감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

을 나타냄으로써 교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학습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친밀감의 경우, β 가 .16($p<.05$)으로 통제감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보일수록 학습에 대한 통제 수준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자아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4 ($F=3.913, p<.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친밀감($B=.609, t=3.231,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능감의 14%가 교수신뢰 중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의 친밀감 정도는 β 가 .28($p<.01$)으로 자아효능감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보일수록 자아효능감 수준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대학생활적응의 주된 예언 변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교수신뢰의 하위 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R^2 가 .17 ($F=5.147, p<.0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친밀감($B=3.273, t=2.204, p<.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의 17%가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친밀감의 경우 β 가 .19($p<.05$)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대학생들의 대학적응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이 교수신뢰의 하위 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교수신뢰 하

<표 6>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교수신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대학생활적응	(상수)	186.888	30.683		6.091***
	친밀감	3.273	1.485	.190	2.204*
$R^2=.17, \text{ Adjusted } R^2=.14, F=5.147^{***}$					

* $p<.05$, ** $p<.01$, *** $p<.001$

<표 7>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교수신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학업적응	(상수)	50.427	9.302		5.421***
	개방성	1.591	.612	.315	2.601**
	능력	-1.368	.638	-.255	-2.145*
	친밀감	1.395	.450	.267	3.100**
$R^2=.18$, Adjusted $R^2=.14$, $F=5.263$ ***					
사회적응	(상수)	43.621	10.099		4.319***
	믿음	1.525	.720	.268	2.117*
	친밀감	.962	.489	.175	1.969*
$R^2=.13$, Adjusted $R^2=.09$, $F=3.587$ **					
대학만족	(상수)	32.896	10.503		3.132**
	개방성	1.651	.691	.282	2.390*
$R^2=.22$, Adjusted $R^2=.18$, $F=6.188$ **					

* $p<.05$, ** $p<.01$, *** $p<.001$

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각 표준중다회귀분석(enter)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정서적응 요인에 대해서는 교수신뢰의 어떤 하위요인과의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8 ($F=5.263$, $p<.0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개방성($B=1.591$, $t=2.601$, $p<.01$)과 능력($B=-1.368$, $t=-2.145$, $p<.05$), 친밀감($B=1.395$, $t=3.100$,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의 18%가 교수신뢰 중 개방성과 능력,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의 개방성의 경우, β 가 .31($p<.01$)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적응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대학생들의 학업적응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보이는 친밀감의 경우, β 가 .26($p<.01$)으로 학업적응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과 정서적 결속감을 느끼고 친밀할수록 학업적응 정도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에 능력 정도는 β 가 -.25($p<.05$)으로 학업적응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사회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13 ($F=3.587$, $p<.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믿음($B=1.525$, $t=2.117$, $p<.05$)과 친밀감($B=.962$, $t=1.96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의 13%가 교수신뢰 중 믿음과 친밀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교수들이 보이는 믿음의 경우, β 가 .26($p < .05$)으로 대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믿음을 줄수록 대학생들의 사회적응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친밀감의 경우, β 가 .17($p < .05$)으로 사회적응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과 정서적 결속감을 느끼고 친밀할수록 사회적응 정도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대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의 경우 R^2 가 .22($F=6.188, p < .01$)으로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신뢰 하위요인 중 개방성($B=1.651, t=2.390, 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만족의 22%가 교수신뢰 중 개방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의 개방성은 β 가 .28($p < .05$)으로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교수가 대학생들을 편견없는 개방적인 태도로 대할수록 대학생들의 대학만족도는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신뢰 정도가 학습동기와 대학생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생 지도와 교수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된 요인들로서 신뢰, 학습동기,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교수신뢰와 대학생생활적응, 교수신뢰와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교수신뢰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다.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교수의 친밀감은 학생들의 과제가치와, 통제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한편 교수의 능력에 대한 인지는 외적동기, 과제가치, 통제감 등 학습동기의 여러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 등에서의 능력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수신뢰 요인은 능력과 친밀감인데, 이는 교수가 자신의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이를 발휘하며 정서적으로 학생들과 친밀하게 연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신뢰의 측면 중에서 능력이라든지 성실성보다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해 교수 신뢰의 하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학업적응 및 대학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았다. 학업적응은 친밀감, 개방성, 능력 등 교수신뢰의 여러 하위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교수신뢰 요인 중 능력 요인은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목할 만하다. 즉,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 그들의 친밀감이나 개방성보다 능력에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이는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그다지 좋지 못한 영향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응은, 교수신뢰 요인 중 믿음과 친밀감에 영향을 받았다. 대학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하는 작은 사회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며 친밀감을 가질 때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만족 및 사회적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만족도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들의 개방성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를 신뢰하는 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Wentzel(1999)은 학생의 학습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란 주위의 의미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사회화 경험이 바로 이 대인관계에 해당된다. 특히 대학에서는 각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일종의 도제관계를 형성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학문을 연마하는 교육기관임을 전제할 때 교수와 대학생들의 신뢰관계는 그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학문적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김정화, 김언주, 2006)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과 더불어 재학생들의 학교적응도를 높여 탈락율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일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면화하여 교육의 가치를 더 높게 느끼게 되며, 자신의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Murdock & Miller, 2003). 정의적인 측면에서 대학적응과의 교수신뢰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 교수들은 대학생들과 인간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대학의 질을 높임은 물론 사제시간의 인격적 만남과 학문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폭을 넓힘으로써 개방성과 친밀감을 확보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효과적인 학생지도와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부 남녀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지역적 편중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상관 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교수신뢰와 관련되는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학업성취 등과의 관계모형의 검증을 통해 인과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복(2002).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숙(1998). 학습동기와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김언주(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117-129.
- 박희자(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태도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홍(1988). 수업사태에서의 교사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2001). 학교 홈페이지 활용에 따른 교사-학생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의 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숙정(2006). 학교변인과 학생들이 교사신뢰와의 관계: 학교급, 학교·학급규모, 남녀공학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1), 171-194.
- 이숙정·한정신(2004). 교사 신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23-39.
- 이윤정(2004). 초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학교 적응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1). 교육의 철학적 차원. 서울:교육과학사.
- 이철희(2000).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자(2004). 중학생과 대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숙(2005).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가 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욱(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연구, 25, 83-101.
- 조광규(1997). 교사행동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학습동기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1999).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만영(1999).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선(2000).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진경구·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1), 5-169.
- 한순미(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 연구, 18(1), 329-350.
- 허은호(2001).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pplebaum, B. (1995). Creating a trusting atmosphere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Theory*, 45(4), 443-452.
- Babad, E. (1990). Measuring and changing teachers' differential behavior and perceived by students and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83-690.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Bryk, A. & Schneider, B. (2002). *Trust in schools*. NY: Russell Sage.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arcia, T., & Pintrich, P. R. (1995, April). Assessing students'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urdock, T. B. & Miller, A. (2003). Teachers as sour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al identity: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nalytic approach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3(4), 383-399.
- Peabody, S. A., & William, E. S. (1982). Attitudes of Younger University Students Toward Olde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 140-143.
-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ob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558.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Stipek, D. (1998).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 (전성연 · 최병연 공역(1999). 학습동기. 서울:학지사)
- Tarter, C. J., Sabo, D., & Hoy, W. K. (1995). Middle school climate, faculty trust and effectiveness: A path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9, 41-49.
- Tschannen-Moran, M. & Hoy, W. K. (1998). Trust in school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4), 334-352.
- Weinstein, R. (1993). Children's knowledge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school: Implications for motivation. In T. Tomlinson (Ed.),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Overcoming barriers to high achievement* (pp. 197-224). Berkely, CA:McCutchan.
- Wentzel, K. R. (1999). Social-motivational process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otivation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 76-97.

* 논문접수 2007년 8월 5일 / 1차 심사 2007년 9월 14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30일 / 3차 심사 2007년 12월 14일 / 4차 심사 2008년 3월 15일 / 게재 승인 2008년 3월 20일

* 정은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를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임.

* e-mail: jejei@chungwoon.ac.kr

* 박용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음. 현재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교육심리를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음.

* e-mail: edu4all@empal.com

Abstract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Eun-I Jeong* · Yong han Park**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faculty's role and attitude for students' learning and adjustment at college,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ulty trust and learning motiva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ulty trust and school adjustment. To do this, the study tested the correlation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and also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which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the more faculty trust a student had, the higher learning motivation he/she showed. The factors of faculty trust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were ability and intimacy. Specifically, intimacy between student and faculty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task value, sense of control, and self-efficacy, while student's perception about faculty ability had effects on his/her external motivation, task value, and sense of control.

Second, the higher intimacy a student perceived about his/her faculty, the better school adjustment he/she showed. Intimacy, which referred to how close faculty and student were emotionally, was a more important factor for student's school adjustment than was faculty's ability or integrity. In particular, students' faculty trust explained more of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and school satisfaction among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was explained by intimacy, openness, and ability among the sub-factors of faculty trust, while school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faculty's level of openness that a student perceived.

In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valuable implications to faculty for effective student guidance and school management by showing that students attain more school satisfaction, better academic/social adjustment, and higher learning motivation when there are more intimacy and trust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Key words: school adjustment,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 Chungwoon University

** Michigan University